

투데이 칼럼

함부로 해서는 안될 말

언어 생활에서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을 할 때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실수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습관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 생활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에게 아니함만 못한 말이 있고 차라리 하지 않은 편이 나은 말이 있다. "그 나이에 대단해 보이세요."도 그중 하나의 표현이다. 선의로 하는 말이지만, 그 나이엔 대개 보기 좋다는 것처럼 들려 모욕적이고 업신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도 상대에 따라 공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와 달리 "왜 그렇게 풀이 영망이냐"는 소리가 들린다. "살이 빠졌네요"라는 칭찬도 마찬가지로 "예전엔 뚱뚱했다"고 과거를

소환하는 지적질이나 더듬었다.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은 무사안일과 비타협적 태도를 자인하는 연사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떠나 말은 일에 소극적이고 미숙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건 내일이 아니다"도 같은 느낌을 풍긴다.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팀 동료나 구성원들을 부인하고 '왕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뒷걸음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나 할 말이

"그러게 내가 뉘했어"는 듣는 사람을 돌아버리게 한다. 우월함을 거들 강조하려는 말인데 어린아이가 동생 놀리는 듯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유치하고 웅졸하게 들린다. "전에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말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불쾌감을 내비치며 나무라는 듯하다. "못하겠냐" "해보기는 하겠다"라는건 특히 직장에선 안 될 소리다. 스

스로 "그 일을 할 노하우나 의욕, 또는 풀 나 없다"라는 말과 다름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못하겠냐"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이나 "외람되지만"도 아니함만 못하다.

질문을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자신을 폄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리석은" "외람"이라고 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종종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돼 곧바로 무시모드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생각하기에 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양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아니함만 못한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말은 상황중심, 공감중심, 과장된 언어들의 특징이 강하고 자기 편의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김 양 옥

전주교육대 평생 교육원 교수

사설

김영진 시인의 호스피스 이야기

최근 도내 김영진 시인이 호스피스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연봉'을 출간해 관심을 모았다. 이 책은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몸소 겪은 스토리를 담았다.

호스피스 병원은 환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피 주는 곳이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저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다. 환자들 곁에서 도와주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 즉 요양보호사다. 그는 교직을 떠난 후 선교사의 역할을 했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5년차 일했다.

그 동안 130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났다. 그는 말기 환자들의 대소변 기저귀 처리까지 도와주었다.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환자들에게는 후회하는 일이 없었다.

자신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을 비롯 가족 돌봄에 소홀했던 것, 직장에 너무 매여 살았던 것,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도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저자는 소망의 하늘나라 빛이 있는 밝은 곳에서 편히 잠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에 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풀다가 문득 "아, 때가 되면 너도 가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김영진 시인은 환자들을 섬기면서 힘이 들 때 마다 짧은 날, 감명 있게 읽은 책 '성자 더미안' 신부의 고귀한 삶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다.

김영진 시인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 상산고 교사로 정년퇴임했다. 시집으로 '주님 찾기', '내 마음의 수채화', '나무들이 사는 마을', '타자말의 눈물', '여섯시 반', '집자의 길'이 있다.

김제시 재능기부 행복의 집

김제시에서 진행되는 '재능기부 사업'이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재능기부 행복의집 5호 현관식을 공덕면 지수마을 대상자 가정에서 가졌다.

재능기부 행복의집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상우산업개발과 유한회사 수인테리어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뇌출혈로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돌보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도배장판 및 처마 보수와 주택 외벽의 페인트칠 등 주택 전반을 말끔히 리모델링했다.

특히 상우산업개발에서는 약 1500만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진행했다. 수인테리어에서는 500만원을 기부했다. 그 밖에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와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 뜻을 모아 주택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사업에는 공덕면 지역사회회복장협의회와 복지공동체원들도 힘을 보탰다. 바쁜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정리 및 환경 미화 사업 등에 뜻을 모은 것이다. 더불어 함께 하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나눔의 깊이를 더했다.

상우산업개발 송수용 대표는 "주거가 열악한 이웃에게 행복의 집 기부를 통해 저 또한 보람을 얻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번 민관이 함께 하여 이루어낸 행복의 집 5호의 탄생은 자랑스럽고 뜻깊은 일이다. 이를 위해 앞장 선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사업이 지역 사회에 소중한 선례가 되어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말연시 따뜻한 선행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욱 이웃 사랑 실천 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르웨이 구조선에서 내리는 이민자들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카타니아 항구에 정박 중인 노르웨이 구조선 '지오 바렌츠(Geo Barents)'에서 아이 등 이민자들이 내리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선박 승선자 중 미성년자와 환자만을 선별해 하선시키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들 구조선이 지중해를 오가며 불법 이주민을 실어 나르는 '셔틀' 역할을 한다며 인도적 사안이 아닌 이상 구조선의 입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침내 완주했다"



세계 최대의 마라톤 축제인 뉴욕마라톤이 6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개막해 참가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에서 케냐의 에벤스 체벳(남자부, 2시간8분41초)과 세런 로케디(여자부, 2시간23분23초)가 우승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